

### 월드컵 소식

## '골든슈' 클로제 유력

### 5골 선두...앙리 3골로 추격

독일월드컵축구 최다 득점자에게 주어지는 '골든슈'는 결국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사진)가 신을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오전(한국시간) 현재 대회가 준결승까지 모두 마무리돼 결승전(이탈리아-프랑스)과 3~4위 결정전(독일-포르투갈) 등 2경기만 남은 가운데 클로제가 5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3골로 클로제의 뒤를 쫓고 있는 선수는 에르난 크레스포, 막시 로드리게스(이상 아르헨티나), 다비드 비야, 페르난도 토레스(이상 스페인), 호나우두(브라질), 티에리 앙리(프랑스), 루카스 포돌스키(독일) 등 모두 7명.

이 가운데 앙리와 포돌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팀이 8장에서 모두 탈락하는 바람에 더 이상 클로제를 따라잡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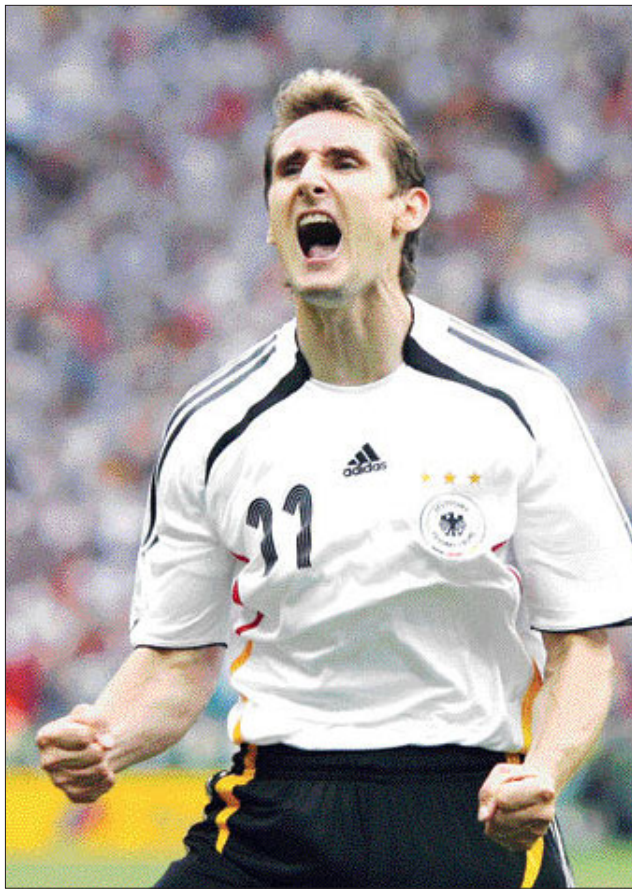
또 2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16명인데 결승 및 3~4위전에서 될 수 있는 선수는 지네딘 지단과 파르크 비에라(이상 프랑스), 루카 토니(이탈리아), 마니시(포르투갈) 등 4명.

때문에 클로제의 골든슈 라이벌은 6명 정도로 압축됐고 그나마 유력한 경쟁자는 최전방 공격수인 데다 3골씩을 기록하고 있는 앙리와 포돌스키로 모아진다.

여기에서도 굳이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진다면 포돌스키를 꼽을 수 있다.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 특유의 '빛장 수비(카테나치오)'를 상대로 우승을 다툴야 하는 앙리보다는 포르투갈과 부담없는 경기를 펼칠 포돌스키가 비교적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앙리는 결승전에서 두 골 이상을 터뜨려 클로제를 따



라잡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포돌스키도 3~4위전에서 아무리 부담없는 경기를 한다고 해도 클로제와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뛰기 때문에 그를 짓고 싶은 자 해트트릭을 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신인왕 포돌스키 우세

루카스 포돌스키(독일·FC کل른·사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 트란클로 바르네타(스위스·바이엘 레버쿠젠), 세스크 파브레가스(스페인·아스날), 루이스 발렌시아(에콰도르·레크레아티보 우엘바).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부터 신설된 '질레트 베스트 영 플레이어(신인상)' 수상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독일월드컵 공식 홈페이지는 국제축구연맹(FIFA) 테크니컬스태디스트(TSG) 멤버 14명이 최종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벌여 현재시간으로 7일 수 상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상은 198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선수를 대상으로 독일월드컵의 활약을 평가해 수상자를 정한다.

결승에 오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는 연령 기준에 드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



또 오는 9일 열리는 3~4위전은 선정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최종 후보 가운데 호날두, 발렌시아, 메시는 팬 투표에 의해 선정됐고 포돌스키, 바르네타, 파브레가는 FIFA TSG가 뽑았다.

팬 투표에서는 호날두가 27%를 얻어 7%에 그치고 있는 포돌스키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성적표에서는 포돌스키가 절대 우세다.

포돌스키는 준결승까지 6경기에서 3골을 뽑았다. 호날두는 1골에 그치고 있다.

포돌스키와 호날두는 둘 다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해 비슷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객관적인 성적을 따져볼 때 미로슬라프 클로제(브레멘)와 함께 전차군단의 연승 행진을 이끈 포돌스키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식 시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월드컵에서 최고의 영플레이어로 꼽을 만한 선수들은 축구사에 큰 족적을 남긴 대스타들이다.

1958년 스웨덴월드컵의 펠레(브라질),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 프란츠 벤텐하워(독일), 1998년 프랑스월드컵 마이클 오언(잉글랜드) 등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도 이 상을 시상했다면 1981년생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만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붕대투혼 최진철 "대표팀 은퇴"

2006 독일월드컵축구 스위스전에서 '붕대 투혼'을 펼쳤던 태극전사 '망명' 최진철(35·전북)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진철은 6일 울산 동구 서부구장에서 소속팀 회복 훈련을 마친 뒤 "이번 주말 인천에서 열리는 K-리그 원정 경기를 마친 뒤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은 최진철이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히는대로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최진철은 최진철이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비롯해 그동안 한국 축구에 공헌해온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공식 은퇴식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철은 "이제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라며 은퇴 이유를 담담하게 전했다.

최진철은 본프레레호 시절인 2004년 12월 독일과 평가전을 마친 뒤 대표팀을 떠나기로 했다가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아드 보카르호 훈명보 코치 등 주변의 복귀 권유로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호날두 "잉글랜드서 어떻게 뿔까"

#### '루니 파울 어필'에 팬들 따가운 시선 걱정

'파울 일러바지기'로 호역을 치르고 있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1·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걱정이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인데 정작 리그를 치러야 할 잉글랜드에서는 어떻게 뿔까.

포르투갈-프랑스의 2006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4강전에 열린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뮌헨 월드컵경기장.

포르투갈 대표팀의 원포워드 폴타임을 뽐낸 호날두는 경기 내내 관중의 아우 속에서 플레이를 펼쳐야만 했다.

호날두는 잉글랜드와 8강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웨인 루니(21)가 수비수 하카르투 카르발류의 급소를 밟아 퇴장 당했을 때 멀리서 달려와 주심에게 카드를 꺼낼 것을 요구한 뒤로 불화설이 휩싸였다.

이날 호날두가 공을 잡기만 하면 야유가 쏟아졌다. 물론 야유는 호날두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프랑스 팬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일팬들도 동조했다.

호날두가 공을 잡았을 때 한 번도 야유가 쏟아지지 않은 적이 없다. 심지어는 공이 그의 근처로만 가도 '우~'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가 특유의 현란한 발제권을 부러도, 멋진 힐 패스를 성공 시켜도, 상대의 볼을 재치있게 가로채도, 반칙을 당해서 그라운드에 평굴어도, 전광판에 모습이 비쳐도 야유는 그치지 않았다.

월드컵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루니와 한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 호날두가 잉글랜드 팬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팬들의 비난은 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부상병' 돌아온다

## 이대진·신용운·김진우·강철민 이달 중 복귀 후반기 마운드 전력 보강...순위 상승 기대

"이대진, 신용운, 김진우, 강철민 출격 완료"

부상으로 잠시 녹색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감췄던 프로야구 스타급 선수들이 올스타 휴식기(7.21~24)를 전후해 줄줄이 돌아온다.

특히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순위경쟁에 숨겨뒀던 KIA는 그동안 꾸준한 재활을 통해 '에이스급' 투수 4명이 모두 복귀할 것으로 보여 전력 보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A는 우선 90년대 중반 '신에 타터K'로 이름을 날린 이대진(32)과 '사이드 암 마무리' 신용운(23)이 수초 후유증을 딛고 마운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대진은 2004년 10월 우측어깨 회전근 수술을 일본에서 받은 뒤 지금까지 1

년 7개월여간의 재활을 거쳤고 6일 삼성과의 2군 경기에서 등판, 2이닝 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우측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신용운도 오는 8일 2군 경기에서 마산 롯데전에서 실전감각을 조절하고 늦어도 7월말께 1군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올 시즌 도중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KIA의 1, 2선발 김진우(23)와 강철민(27)도 2군 경기에서 제구력을 점검한 뒤 조만간 1군에 재투입된다.

타 구단도 부상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스타급 선수들이 그라운드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투수 왕국' 현대는 지난해 9월 나란히 어깨 수술을 받았던 특급 마무리 조용준(27)과 베테랑 선발 정민태(36)가 마운드

복귀를 준비중이다.

조용준은 수술과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2군 경기를 돌며 1군 무대에 다시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은퇴 권유를 뿌리치고 마지막 투혼을 불사하려는 정민태는 조용준보다 재활 속도가 느리고 지구 최고 구속도 130km에 머물고 있어 실전 피침으로 구축을 끌어올린 뒤 다음 달 복귀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SK는 '총알투의 사나이' 엄정욱(25)도 복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때 국내에서 가장 빠른 158km의 광속구를 뿌렸던 엄정욱은 고질적인 어깨 통증이 사라져 실전 피침으로 경기 감각을 익히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지난 시즌 후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재활을 거쳐 최근 가벼운 캐치볼을 하고 있는 삼성의 투수 임창용(30)도 다음 달 중순 2군 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익힌 뒤 마운드에 오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구단 홍보 대사 개그맨 박준형 위촉

KIA타이거즈는 8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현대전에 앞서 개그맨 박준형의 구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는다.

박준형은 이날 KIA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시구를 할 예정이다.

박준형은 현재 개그맨, 라디오 DJ, MC, 백제예술대 방송연기과 겸임교수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KIA 관계자는 "박준형씨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많은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각종 선행 활동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구단 홍보대사로서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동성고 결승행 좌절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동성고에 제60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 문턱에서 아쉽게 고개를 떨쳤다.

동성고는 6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유신고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로 역전패했다.

동성고는 1회말 1사 3루서 임익준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동성고는 그러나 1-0으로 앞서가던 5회초 유신고에 불빛과 연속 안타를 내줘 1점을 헌납하고 말았다.

동성고는 이후 '에이스' 양현종을 마운드에 올려 연장 11회까지 승부를 이어갔으나 터지지 않는 답답한 방망이가 아쉬웠다.

유신고는 11회초 2사 1,2루서 정진호의 좌전안타로 결승점을 뽑아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7일(금)
-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필라델피아>(07:55·Xports)
- ▲제60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결승전(13:00·KBS1·KBS SKY SPORTS)
- ▲프로야구<화하-삼성>(18:30·KBS SKY SPORTS), <LG-롯데>(18:50·SBS 스포츠), <KIA-현대>(19:00·MBC ESPN)
- ▲윌블던 테니스 남자단식결승(22:30·MBC ESPN)

- 8일(토)
- ▲PGA 투어 사할리스 웨스턴 오픈 2R(05:00·SBS스포츠)

### 랭킹 59위 비요르만 "4강 간다"

스웨덴의 요나스 비요르만(59위)이 6일 새벽 올림피아드클럽에서 진행된 윌블던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8강전에서 리액 스테파넥(13위·체코)을 3-2로 물리치고 4강 진출을 확정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화순실고 이용대 맹활약...한국우승 견인

###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 선수권

화순실고 이용대가 한국 주니어 배드민턴을 아시아 최강으로 이끌었다.

나현수(화정중 교사) 단장이 이끈 한국 주니어 배드민턴팀은 5일 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06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 5일째 남자혼합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1로 격파한 뒤 이어 열린 결승에서 홈팀 말레이시아에 3-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말레이시아 홈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으로 불리한 여건속에 3시간40분이나 소요된

대결전이었다.  
한국은 2-1로 밀리며 패색이 짙었던 상황에서 4번째 남자복식에 나선 화순실고 이용대-조건우조가 립킨와-막희준조를 2-0으로 잡아 2승2패로 균형을 맞춘 뒤 마지막 여자복식에서 유현영-선인장조가 윤케웨이-호비링조를 2-0으로 눌러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중국 3위, 인도네시아는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남자단체전에 이어 혼합단체전까지 평정한 한국은 오는 11월 인천에서 열리는 2006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의 전망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